



<올림픽>美.日.加, 박터지는 야구 4강 싸움

송고시간 I 2008-08-17 16:22











이충원 기자 기자페이지

<올림픽>美.日.加, 박터지는 야구 4강 싸움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 풀리그가 5일째로 접어들며 준결승에 진출할 4개국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성적은 쿠바(4승)와 한국(3승)이 가장 좋다.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일본을 꺾고 전승 행진 중이다. 예선 풀리그 7 경기 중 준결승 진출에 필요한 승수는 4~5승이다. 쿠바는 네덜란드, 한국, 중국전을 남겨놓았고, 한국은 중국(17일), 대 만(18일), 쿠바(19일), 네덜란드(20일)를 상대로 1~2승을 챙기면 된다.



문제는 준결승 티켓 4장 중 나머지 2장의 주인이 누구냐다. 2승2패씩을 거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유력하지만 중국(1승 2패)이나 1승3패 동률인 캐나다, 대만, 네덜란드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남은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다소 여유가 있고, 일본과 캐 나다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 대만, 일본전에서 어렵지 않게 2승 이상을 챙길 것 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캐나다, 대만이 서로 치고받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일 본은 미국, 캐나다, 중국전을 남겨놓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일본, 네덜란드, 대만과 경기를 치르면 되고, 대만은 한국, 미국, 캐나다 를 상대해야 한다. 물고 물리는 4강 싸움에서 18일 캐나다-일본 전, 20일 일본-미국전이 4강 티켓 2장의 주인을 가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

예선 풀리그가 끝나도 전적만으로는 4강이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승3패인 국가가 3개국 이상 나올 경우다. 대 회 규정에 따르면 전적이 같은 나라가 2개국이면 상대 전적을 따지면 되지만 3개국 이상이 면 실점률과 득점률을 차례 로 따져야 한다.

2패를 떠안은 일본이 남은 경기 `실점 최소화'를 과제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도 중국, 대만을 꺾을 때까지는 아직 4강 진출이 확실하다고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어느 나라가 준결승 상대국이 될지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chung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7 16:2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뜫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상갑자...美, 꺼텼넌 무기: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 크라에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尹당선인 "물기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 만...임기 끝까지 최선"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尹측 "정호영 '아빠 찬스' 논란, 국회 검증 의 시간 지켜볼 생각"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60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56 동재개 예열?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_{∰ 41} 힐예정"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